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은 카자흐스탄 환자, 진단에서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사업가 카림벡 씨가 성공적으로 폐암 수술을 받고 26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카림벡 씨는 본국에서 주치의가 관리하고 있어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지만, 다른 친구 부부의 추천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수도권과 제주도에 여행을 할 계획이었다. 세심한 배려와 수준 높은 의료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 폐암이 발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카림벡 씨는 흉부외과 의료진에 대한 믿음으로 왼쪽 폐를 먼저 수술하고 경과를 보면서 오른쪽 폐도 수술하여 두 번의 수술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40여 년간 피던 흡연 욕구와 타국에서 치료받는 스트레스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흉부외과 의료진과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은 모두 비상상황에 돌입하여 환자 치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고 퇴원을 앞둔 카림벡 씨는 “양쪽 폐 모두에 종양이 있다는 결과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손자 결혼식까지 꼭 보고 싶다.”고 전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해준 동국대학교병원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카림벡 씨는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찾아 CT검사 등의 추가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02 ‘퇴행성 관절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고양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덕양구 보건소와 함께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27일 진행했다.

이날 건강강좌에는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의 ‘퇴행성관절염’ 강의를 듣기 위해 약 60여 명의 고양시민이 참석했다.

안지현 교수는 강의에서 퇴행성관절염의 전반적 증상과 진행과정을 설명한 후에 ‘무릎 통증은 꼭 인공관절을 해야 하는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 환자들 궁금해하는 이야기들로 진행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석한 한 시민은 “병원에서 진료받던 교수님이 강의해 주어 더 반가웠다.”며, “짧은 진료시간에는 하지 못하는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고양시와 함께 올 4월부터 만성질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고양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03 2015년 9월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9월 1일부터 축소한다.

이번 개편은 선택의사·상급병실 축소 외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 환자안전관련 수가, 특수병상 수가가 개편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는 선택의사 지정범위를 80%에서 67%로 줄이고, 연도별로 확대하여 16년에는 33%, 17년에는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 이상의 일반 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려 상급병실이 축소된다. 단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축소에 따른 보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등급화해 외래와 입원진료의 건당 수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수술 및 마취 시, 중증 또는 응급환자 처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회복관리료, 항암관리료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수가 중 무균조제료,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수가 등을 인상했다.

추경란 보험심사팀장은 환자에게 혼선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최한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설명회에 참석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번 개편안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주인공 34호

61병동

안지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교직원 여러분, 천만 관객 돌파를 바라보는 ‘베테랑’이란 영화 보셨나요? 이번 주는 제 맘속 영원한 ‘베테랑 간호사’ 안지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길목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어머님이고, 또 한 분은 안지은 간호사입니다. 6년 전 2009년 이맘때, 어머님 병간호를 할 때입니다.

내시경검사를 위해서 좌약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안지은 선생님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부끄러움과 아픔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요.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침착하게 어머니를 계속 설득하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베테랑다운 모습.

‘아~이런 모습이 정말 프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안지은 선생님은 평상시에도 주변 지인들 일이라면 아무 보답 없이 팔 걷어 올리고 내 일처럼 도와주는 거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6살 난 아들이 있지만, 남편한테 부탁하고 늦게까지 병원 사람들 일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도 겸비하고 있다네요^^

병원 밖에서는 가족들과 공연도 자주 보러 다닌다고 하는데요... 저도 같이 공연을 보고 싶지만, 결혼을 해서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에 밥은 꼭 한번 사고 싶습니다.

안지은 선생님...

2009년 그해 여름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류팀 박용진

알리미

동구보건소 건강강좌 주제 : 고혈압의 이해 | 강사 : 한방내과 최동준 교수

일시 : 9월 2일(수) 10:00 | 장소 : 동구보건소 1층 건강누리